

걸어다니는 미술관

“지난 15년 동안 그는 성심으로 미술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기록하여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미술정보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를 안지 10여년, 그동안 나는 간혹 축복도 받고 이름도 얻었지만 그는 오로지 한길만을 걸어왔다. 간혹 전시장에서 마주칠 때 나는 웬지 그에게 무슨 빛을 지고 있는 것만 같은 미안함을 느낀다.”(미술평론가 유홍준 교수)

김달진. 세상에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능직 공무원 10급인 그의 '사회적 신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술계에서 '국립미술관 자료실 김달진'을 모르는 사람은 속된 말로 간첩이다. 그에게는 한국현대미술과 관련한 거의 모든 자료가 입력돼 있고, '미술을 한다'는 사람치고 자료일로 빚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미술관계자료 수집을 위해 외곡으로 매달려온 노력에 비해 사회적 대우는 가혹하기만 하다. 아내는 여태껏 신문배달로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하나의 기념비적 자료집으로 결실을 맺었다.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에 게으르기 짝이 없는 미술계로

서는 경하해 마땅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 미술>이 그것이다. 책

속에는 '연표로 본 80년대 한국미술' '한중 미술 교류사' '한국의 극사실주의 10년' '새로운 미술운동 26년'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사조가 전시회 등 행사를 중심으로 정리돼 있고 30여개 미술상, 60여개 공모전 등의 실태도 실려 있다. 50여개 미술문화재단, 연구소, 학회의 실태는 물론 폐간 미술잡지의 주요 기사까지도 정리했다. 잡지 속의 명화를 오려 모으며 지내던 72년 고교시절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계기로 한국미술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행로를 잡았다. 그해 무작정 미술평론가 이경성(홍익대)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가 지도편달을 부탁하기도 했다. 81년 이 교수

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하면서 '미술자료 수집이나 도서관의 운영이 엉망인' 현대미술관 자료수집 담당으로 채용돼 오늘에 이르렀다.

곽병찬 기자

